

2009.12.6.일 대구성령집회(이원미 강도사)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구스타교회 이원미입니다. 네,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성령집회, 오늘 나는 여기 모인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고자 왔노라.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님의 사랑이니라. 오늘 성령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나의 사랑의 눈이 뜨게 될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이를 통해 하는 말을 모두 잘 들어 보아라. 나는 너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여기 대구땅에 모인 모두에게 오늘 나는 선물을 하나 할 것이다. 이것은 평생 값을 매겨도 매길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이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될 오늘이니라. 먼저 감사함으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하노라. 육의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아야 진정 성령이 너희에게 가득 차고 넘칠 것이니라. 나는 오늘 부흥강사를 통해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직접 기르고 키운 자이니 나를 믿는다면 의심없이 이 부흥강사의 말을 믿고 귀를 기울여 듣길 원하노라. 나는 오늘 부흥강사를 통해 너희에게 직접 말하고자 하노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진정 알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너희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모든 인생의 걱정, 근심, 염려, 고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진정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지 깨닫게 되며 성령을 받아야 더욱 나를 부르고 나는 너희를 부르게 된다. 곧 일체라는 것이다. 너와 나는 더욱 가까워지고 내 안에 속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거하는 내가 보고 싶느냐? 여기에 거하는 내가 보고 싶느냐? 그리하다면 오늘 부흥강사를 통한 나의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보아라. 그 순간 나는 너에게 나타날 것이고 너는 나를 느끼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사랑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치유의 성령, 심정의 성령, 모든 성령 오늘 원없이 한없이 부어 주노라.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세계로 이 사랑의 불길 널리 번져나갈 것이다. 한 명, 한 명을 진정 사랑하노라. 오늘 나와 반드시 사연을 남기고 가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너희의 사랑 주 예수가 오늘 대구땅에서 나는 말하노라.

감사합니다.